

시티팝과 아시아적 도시감성의 탄생

-일본, 홍콩, 타이완, 한국을 중심으로

김은영 (金恩英)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대중문화계의 뉴트로(newtro) 붐 속에서도, 시티팝 열풍은 단연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다. 2021년 10월 현재 구글에서 '일본 시티팝 플레이리스트(Japanese city pop playlist)'를 검색하면 유튜브 영상을 포함하여 오백만 건 이상의 비디오가 검색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같은 글로벌 음악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플레이리스트까지 추가할 경우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티팝의 글로벌한 인기는 70년대 말 일본에서 시티팝이라는 장르가 발생한 이래 처음 맞이하는 현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놀랍게도, 태생적으로 이미 글로벌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코즈모폴리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시티팝은 일본에서의 유행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홍콩과 타이완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대도시는 물론, 싱가포르와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등 동남아시아의 도시 지역으로까지 빠르게 전파된 바 있다. 바꿔 말하면, 시티팝은 그것이 일본에서 유행했던 80년대에 이미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화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 홍콩, 타이완, 한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시티팝의 범아시아적 유행을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그리고 이로 인한 신흥 도시 중산층의 형성이라는 거시적 변화와 연관 지어 살펴본다. 또한 타케우치 마리야(竹内まりや)의 〈Plastic Love〉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시티팝 곡들을 사운드 및 가사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아시아적 도시감성의 일면도 함께 들여다본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방문학자로 동아시아 사상사를 연구했다. 이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네덜란드의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등지에서 프로파간다 포스터 등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했다. 올해 4월 중국의 루쉰(魯迅),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한국의 리영희(李泳禧)의 사상을 제3세계성(thirdworldness)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9월에 방문 펠로우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합류하였다. 아시아연구소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중문화, 특히 대중음악과 K-Pop 팬덤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대중음악을 통해 20세기 아시아의 청각적 풍경(sonic landscape)을 재구성하고, 대중문화를 통한 아시아성(Asianness)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K-Pop 등 아시아 대중문화의 세계화 현상을 고찰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다.

일시: 2021년 10월 26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